

칼럼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방관자의 말로는 죽음뿐이다

방관자란 어떤 일에 자신은 직접 참여하지 않은 채 곁에서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인정이 많은 사람은 남의 일도 내 일처럼 생각하며 어려울 때 같이 울고 도우며 즐거울 때 같이 기뻐하고 축하한다. 그러나 인정이 없는 사람은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모른척하며 방관한다.

시내 북관길에서 씨름관이 벌어졌는데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으며 강자가 약자를 죽도로 구타 있지만, 경찰이 오기만 기다리고 방관한다. 산언덕 길가에 불이 타들어 가고 있지만, 지나가는 차들은 아무도 멈춰 볼 꼴 생각을 안 하고 '소방차가 와서 끄겠지!' 하고 방관하며 지낸다.

필자가 목포행 버스를 타고 가는데 고막원 언덕길에서 차가 갑자기 멈췄다. "손님 여러분! 잠깐 길가의 불을 끄고 가겠습니다." 하며 기사는 차에 실린 소방도구를 가지고

내려 길가에서 산으로 타들어 가는 불을 끄고 있었으며 승객들은 차에서 내려 기사가 불을 끄는 장면을 칭찬하고 도왔으며 불을 다 끈 후 다시 차가 출발했다. 다른 차들은 보지 못했는지 모르나 불은 먼저 본 사람이 끄는 것이 조기 진화다. 기사의 투철한 시민 정신을 승객들은 칭찬했었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인정이 없는 방관자가 늘어났는지 모르나 차 안에서 지체 부자유의 노인이 서 있지만, 젊은이들은 방관하며 자리 양보를 하지 않는다.

방관자가 많은 사회는 죽음으로 간다는 방관자에 대한 실화를 영화로 촬영해 상영한 중국 영화 '버스 44'가 있어 소개한다.

2011년, 중국에서 어떤 여성 버스 운전기사가 버스를 운행하며 산길을 넘고 있었는데 양아치 3명이 기사한테 달려들어 성희롱하였다. 승객들은 모두 모른 척하고 있는

데, 어떤 중년 남자가 양아치들을 말리다가 심하게 얻어맞았다. 급기야 양아치들이 버스를 세우고 여성 기사를 숲으로 끌고 들어가서 번갈아...

한참 뒤 양아치 3명과 여성기사가 돌아오더니 여성기사는 아까 양아치를 제지했던 중년 남자한테 다짜고짜 내리라고 하였다.

중년 남자가 황당해하면서, "아까 난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느냐?"고 하니가 기사가 소리 지르면서 "당신이 내릴 때까지 출발 안 한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중년 남자가 안 내리고 버티니까 승객들이 그를 강제로 끌어내리고 집도 던져 버렸다.

그리고 버스가 출발했는데 기사는 커브 길에서 속도를 올려서 그대로 낭떠러지로 추락하였다. 전원 사망... 중년 남자는 아픈 몸을 이끌고 시골 산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자동차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

교통을 통제하는 경찰관이 말하길 버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승객이 모두 사망한 사고라고 했다.

멀리 낭떠러지를 바라보니 자신이 타고 왔던 그 버스였다. 그 여성 운전기사는 오직 살만한 가치가 있던, 유일하게 양아치들의 악행을 제지했던 그 중년 남자를 일부러 버스에서 내리게 하고서 모른 척 외면했던 승객들을 모두 지옥으로 데리고 갔다.

이 얘기는 중국에서 일어났던 실화인데 '버스 44'라는 영화로 제작되었다고 한다. '나 몰라라' 방관하고 있던 손님들이 중년의 아저씨를 버스 밖으로 쫓아낼 때는 모두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우리는 이걸의 내용처럼 버스 안의 방관자는 아닐까 반문해 본다.

우리 사회가 올바른 도덕 사회가 되려면 방관자가 되지 말아야 하며 우리 아이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침묵의 방관자는 되지 말아야 하며 교육이 올바른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

부모에 대한 이웃에 대한 국가에 대한, 방관자는 죽음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스스로 나를 돌아보고 방관자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남의 일도 내 일처럼 생각하고 돕는 인정 많은 인성을 길러야 한다.

기고

꾸준한 불법행위 감시 속 높아지는 지역 안전



김재승 함평소방서장

우리 일상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다양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특히 화재 발생 시 복잡하게 구획된 공간과 좁은 통로, 불에 타기 쉬운 실내 장식물은 화재를 빠르게 확산시키며 대피를 어렵게 만들어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당연히 선제적 예방으로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상황 속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활로는 비상구와 같은 피난 시설의 확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비상구가 영업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폐쇄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장소로 사용돼 긴급한 상황 속에서 피난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면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화재 건수 중 출구가 잠겨있거나 장애물이 쌓여 발생한 인명피해는 사망 27, 부상 67명으로 집계되어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 수준을 가리키는 듯해 안타까운 실정이다. 비상구 적지로 인해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한 2017년 제천시 포츠센터 화재가 불과 4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몇몇 사람들 마음엔 당시의 안타까움과 아픔이 벌써 희미해진듯 하다.

현재 함평소방서는 관계인에게 비상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바탕으로 하는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여 각종 재난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는 소방력만으로는 모든 건물을 감시할 수 없기에 지역민의 자제적인 불법행위 감시와 신고를 바탕으로 안전의식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비상구의 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건물 관계인과 이용자 모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평안할 때에도 위험이 닥칠 것을 생각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거안사위(居安思危)'의 뜻과 같이, 나에게 긴박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비상시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감시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당부드린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안전속도 5030? 차에서 내리면 누구나 보행자

2021년 4월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속도 5030는 제한속도를 일반도로 50km, 스쿨존 및 주택가를 비롯한 이면도로는 30km로 하향 운영하여 주체를 차량·운전자에서 사람·보행자로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다.

하지만 그동안 60~70km로 주행했던 도로를 50km로 하향함과 동시에 불편함에 대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잠깐의 불편함이 있지만 안전속도를 지키면 무엇이 달라질까?

종종 키가 작은 어린이들이 어 보호구역, 주택가에 정차 또는 불법 주차되어있는 차량 사이로 뛰어 나갈 때가 있다. 아무리 안전운전을 하고 있고 운전경력이 뛰어나더라도 운전자의 시야에서 벗어나 뛰어어나오는 아이를 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때 속도를 줄여 주행하면 제동거리가 짧아져 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안전속도는 50km 도로에서도 마찬가지다. 출퇴근 길 혹은 바빠 움직여야

하는 일정이 있는 날 50km, 30km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를 발견하면 '빨리 가야하는데..'하고 마음이 급해질 것이다. 하지만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시속 60km와 50km차량 간 통행시간 차이는 약 2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주행속도가 줄어들면 급가속, 급정차가 함께 줄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 교통의 흐름을 개선시킬 수 있다.

실제로 안전속도 5030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지역의 교통

사고 분석 결과는 사고 건수 13.3% 감소되었고, 사망자 수가 63.3% 감소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해 대중교통보다는 자신의 차량을 선호하며, 드라이브스루(Drive through) 증가로 차량 이용이 많아지는 요즘, 답답한 일상에서 운전만큼은 시원하게 하고 싶을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의 위험만큼이나 보행자에게 교통사고의 위험도 크다는 것, 나도 차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야 할 바래본다.

박은유/순천경찰서경무계경장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TEL (061) 905-2011 FAX (061) 905-2012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TEL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FAX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